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생각해 보면, 나란 사람은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 음악을 벗 삼은 덕분에 모난 인격도 조금은 둥글어졌을 테다. 내 젊음 시절, 서울엔 '르네상스', '필하모니', '크로이체' 같은 음악감상실이 버티고 있었다. 나는 자주 그 음악감상실을 찾아가 고전음악을 들었다. 다들 팝이 나 포크송, 혹은 유행가에 휩쓸릴 때 꽃잎이 고전음악에 심취했다.

처음엔 주피어의 '경기병 서곡'이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같은 표제 음악을 듣다가 바흐나 파가니니 등의 기악곡에 빠졌다. 그러다가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말러 등이 창조한 교향곡의 세계에 입성하면서 음악이 무지를 깨부수는 절대적 미와 순수한 기쁨, 숭고함을 품었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나갔다. 구성작가와 통화를 하던 중 방송 중 듣고 싶은 세 곡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라 본(Sarah Vaughan)의 '썸머타임', 리 오스카(Lee Oskar)의 '샌프란시스코 베이(San Francisco Bay)', 조용필의

인간은 음악과 함께 성장한다

'바람의 노래'를 여름에 들으면 좋은 곡으로 골랐다. 세 곡 다 내가 아끼고 즐겨 들으며 남에게도 추천하는 곡이다.

'썸머타임'은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한 재즈 보컬 명곡이다. 본디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슨의 가곡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중 1막에서 자장가로 소개되었다. '썸머타임'을 들을 때 나는 행복한 슬픔을 맞는다. 여름밤에 보채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혼자 흥얼거린다. 강에서는 물고기가 뛰고 목화는 잘 자란다. 네 아빠는 부자이고, 네 엄마는 멋지지. 우리가 너를 지켜줄 테니, 아가야 울지 말거라. 시골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탓에 엄마의 감미로운 자장가를 듣지 못한 채 자란 나는 이 곡을 들으면 숨이 막히도록 슬퍼진다. 이 결핍은 채워지지 않은 채 나란 존재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

30대의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리 오스카의 연주곡을 들었다. 벅고동 소리, 갈매기의 깃털거림, 자동차의 경적이 어우러진 화사한 여름 향구 풍경이 떠오르는 전주만 듣고 단박에 반했다. 음반 매장에서 CD인지 음반인지 물어 헤아릴 수도 없이 들었다. 여름 저녁 햇볕 냄새가 났던 셔츠를 입고 여름의 정취가 물씬 나는 이 곡을 들으며 나는 덧없는 행복에 빠진다. 나중에 이 연주곡이 한 광고의 배경 음악으로 쓰이면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음악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몇 달 전 내가 겪은 일이다. 2022년 6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반 클래식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크레센도'를 극장에서 관람했다.

18세 청년 임운찬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그걸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연주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것이었는데, 기절할 만큼 아름다워 놀랐던 것이다. 그는 피아노 건반을 누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눌러 깊은 무의식이 솟아오르게 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주책없이 평평 눈물을 쏟았다. 그건 벅찬 환희와 함께 나란 존재가 순정해지는 드문 경험 탓이다.

내 음악 취향이 넓어진 건 30대를 지나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이 고전음악만을 고수하던 나는 재즈나 비틀즈, 스모키, 딥퍼플, 사이먼 앤 가펩클, 빌리 조엘 같은 이들의 노래에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조용필이나 최백호, 배호 같은 이들이 부른 가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취향의 변화는 세상을 알 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얻은 범속한 트임 결과일 테다.

늦게나마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또 다른 기쁨과 아름다움이 오롯했다는 걸 깨치고, 취향의 협랑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꼭 다행이다. 음악은 무릎이 꺾인 나를 일으켜 세운 참다운 벗이다. 음악의 위로가 없었던면 인생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이다. 음악은 내 평생 감미로운 피난처였으니 세상이 어둡고 삭막할지라도 나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테다.

社說

기후 변화와 규제에 흑산 홍어 명성 퇴색

전북 군산이 국내 홍어의 주산지로 떠오르면서 신안과 목포를 중심으로 한 흑산 홍어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군산이 국내 최대 홍어 산지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21년부터다. 군산의 홍어 위판량은 2017년 4t, 2018년 36t에 불과했으나 2019년 224t, 2020년 637t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17t으로 전국 1위로 올라섰다. 올해도 1489t을 위판해 전국 위판량(3303t)의 절반에 가까운 45.1%를 차지하고 있다.

어획량 증가에 따라 정부가 사도에 배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도 올해 전 북이 전체(3668t)의 37%인 1365t으로 가장 많다. 반면 2위인 전남은 817t에 불과해 홍어 주산지 명성이 사실상 군산으로 넘어갔다. 가장 큰 원인은 수온 상승에 따른 홍어의 서식지 북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이동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남획을 방지하고 포획량을 제

한하는 TAC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안을 비롯해 전남 홍어 산지로 미끼가 없는 주낙방식으로 홍어를 잡는 반면 군산 등지에서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유지망 조업을 하고 있다. 낚시로 잡는 것과 그물로 잡는 것은 차이가 수백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게임이다. 더구나 군산에는 1년 전엔야 TAC 제도를 적용했는데 아직까지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도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흑산 홍어잡이는 2020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공인된 조업 방식을 인정받고 있다. 신안군도 흑산 홍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수산물어획량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불법 어구까지 사용해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해 서야 될 일인가. 조업방식 규제 강화와 불법 어구가 근절되도록 시급히 TAC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공포... 안전대책 시급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인천과 충남 금산 등에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주로 배터리에서 발화되는 전기차 화재는 불이 10시간 이상 타는 탓에 인근에 주차된 거의 모든 차량을 태우는 등 피해가 막대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 등의 대책을 논의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결함이나 충전 중 과열 등 고전압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 번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더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파트 차원의 초동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날 경우는 폐쇄된 공간으로 인해 수습, 수백 대의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 확산되면 아파트 전체가 정전 등으로 인해 섰다온될 수도 있다.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으며,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인 새벽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을 순찰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사용하고, 과충전 대신 8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전기차 주차와 충전소 안전 기준을 신속히 제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은 아파트가 화재 감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전기차 화재를 살피도록 지도하는 한편 부족한 특수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탐욕을 이기는 용기, 나눔!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보면 불수록 창피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치가 없다. 지도자 또는 책임자를 지칭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왜 그런 창피함은 우리들의 몫이고, 염치 없는 행태에 물상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의와 합법적인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불의하며 편파적이고 이기적이다. 사회의 지도자, 책임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정의롭고 합법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자와 지도자는 그 사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모두를 위한 삶과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선택은 중요하다. 창피함, 염치 없음, 물상식의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선택은 후안무치한 아이를 견제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흑자는 "세상에 악이 만연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불의와 편법을 당당하게 자행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만방자한 이들에게 민의의 눈과 소리는 훌륭한 회초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도자, 책임자라고 일컫는 이들에서 어떤 책임감도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돌봄과 희생의 정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놀랍고 당혹스럽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 탐욕, 곧 소유하려는 욕망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한다. 루카 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어떤 이가 예수께 유산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해결해달라 청하는 부분이다. 예수는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준다. 우리가 쉽게 망각해 버리려하는 빠질 수 있는 재화의 유혹, 곧 돈을 좇으려는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비유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 여러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쓸아둘 수 있어 안전하다고 느꼈고,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행복을 느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이 행복의 절대적인 가치인지의 문이다. 복음은 필요한 재화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의롭고 돌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참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수전노! 탐욕의 노예!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재화를 품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돈을 세는 모습이 연상

된다. 그러다 더 소유하려는 욕심이 생겨 탐욕이라는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자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에는 방해되는 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폭력으로 파괴해 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폭력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공동선과 연대성 그리고 상식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우월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두려움이 폭력을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여 갖는 우월의식이 차별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재화의 유혹에 고스란히 자신을 내동댕이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악습을 통해 양심은 물론 통용되는 상식까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두려움의 결과이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탐욕은 멈출 수 없는 악한 자아로 착각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창피해하고, 물상식이라는 단어까지 내뱉는 것이다. 그렇다면 잔인하고 어리석은 이 영혼은 치유될 수 없는 지의문이다. 악습이 아니라 꾸준한 선을 통해 몸이 자리 잡은 덕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인가? 폭력의 근원인 두려움까지 만들어버리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나눔'이다. 나눔을 실천하는 용기는 복음의 진리인 비움으로써 채워진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기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자립을 위한 초석, 원자력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중국 한서에서 나오는 한자성어로,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라는 말이다. 조선 후기인 17세기부터 대두됐던 실학(實學)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전란을 겪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실생활과 동떨어진 성리학의 탐구에만 몰두하는 사회를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했던 실학자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실제 삶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물, 공기 등 아주 기본적인 물질부터 의식주라는 삶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해당한다. 그 중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 바로 전기다. 전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어쩔다.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이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수력은 전기발전사 초기에 한 획을 그은 에너지원이었으나 지리적 계절적 제약이 있고, 발전량이 미미하다. 화력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나 탄소배출의 주원인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감축의 대상이 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거나 아직은 간헐성과

대용량 저장의 어려움, 높은 발전 단가라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탄소배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같은 폐기물이 발생해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극한호우, 가뭄, 폭염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탈탄소화를 위해 화력은 줄이고 원자력, 신재생 등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지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를 접한 반도이며, 북한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외부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 에너지 자립은 필수 요소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의 석유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한 원자재 가격변동 등의 영향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값싸고 안정적이며 탄소배출이 없는 대용량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소용량, 높은 발전단가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는 원자력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25기 원전 중 198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10기의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운영 중인 발전소를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기존 전력 수요량을 충족시킬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지선정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운영허가 기한에 도달한 원전 252기 중 233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미국과 일본은 계속운전을 20년 단위로 승인한다. 미국의 원전 평균 설계수명은 40년이나, 두 차례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80년을 운전하는 발전소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단위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에 미국의 계속운전 규정을 추가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다. 계속운전 심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총 3가지를 시행한다. 그 결과 국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완료됐으며 최근 고리 2·3·4, 한빛 1·2호기, 한울1·2호기에서는 계속운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빛1·2호기의 경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원전 반경 30km 내에 있는 방사선비상구역인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의견들이 개진되고 좋은 협력 방안들이 도출돼, 지역과 원자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본다.

기후위기는 커다란 문제 앞에, 저렴하고 청정한 전기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실사구시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볼 때이다.

無等鼓

1987년,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는 일파뱃을 간신히 떼면 까까머리 중1 학생들이 영어 듣기평가를 받고는 했다. 선생 학교가 빠르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잦은 매타작이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분도 힘든 영어 듣기평가가 끝나면 아이들의 엉덩이는 초여름 석류처럼 붉게 명들었다. 하지만 교실 바닥에 엎드린 친구들의 엉덩이가 파도치듯 들썩이는 것을 느긋하게 구경하는 만점자도 있었다.

당시 원어민의 웅장한 발음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판매했고, 상당히 비쌌다. 시험도 이 테이프에 담긴 테스트가 그대로 나오곤 했다.

문제는 대다수 아이들이 이 테이프를 살 수 없었다는 것. 그래도 살아남 방법은 있었다. 같은 반에 카세트테이프라는 '치트키'를 확보한 북 받은 아이들의 지나친 자신감이 믿을 것은 엉덩이밖에 없던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곤 했다. 미리 테이프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아이들은 질문에 대한 예시가 나올 때 몸이 먼저 반응하곤 했다. 1~4번까지 예시를 다 듣지 않고도 그들은 답을 알고 있어 시험지에 표기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아쳤고,

이들이 움직일 때 함께 해당 예시에 동그라미를 치면 정답일 확률도 높았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차기 대선 잠룡에 대한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여론조사 정확도는 높은 편이다. 각종 선거에서 진행되는 출구조사는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론조사가 판단을 위한 하나의 자료라는 사실이다. 많은 정치인은 일종의 편향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 추종자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영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론조사 기법상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연령과 성별에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적은 표본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부작용도 따른다. 몇몇 정치꾼은 이런 점을 악용해 가중치를 주는 연령과 성별에 자신의 지지층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하다 보면, 남들 따라 시험지에 동그라미 치다가 정작 영어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중학생들의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듣기평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